

코로나19 추가 감염 차단 방역 만전

지난 23일 두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7일째 없어
 도내 신천지 교인 능동감시중 유증상 보여 촉각
 원 지사 “의료물품 차질없는 보급 최우선 지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3일 (제주 2번·호텔 여직원)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거주 도민감염 '제로화' 사수를 위해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일 제주자치도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 발생하면서 국내 확진자는 총 3526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 376명 중 359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신규 확진자가 대구·경북에서 집중 발생하면서 이 지역 누적 확진자는 3083명으로 증가했다.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서울 5명·충남 5명·경남 3명·경기 2명·부산 1명·충북 1명 등이다.
 하지만 도내 코로나19 확산의 변수로 우려됐던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23일 두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7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도내 신천지 교육생 102명과 교인 64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이중 유증상자 50명(교인·교육생 49명·가족 1명)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코로나19 최대 잠복기(14일)를 감안해 이들 50명을 모두 능동감시 대상으로 포함시켜 오는 12일 자정까지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또 도내 신천지 교인 명단에 있는 필리핀 거주 1명과 방대본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상 관련된 정보가 불

명확해 확인이 어려운 나머지 3명(교인 2·교육생 1)은 방대본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여객선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시작하는데 이어 최근 제주에 입항하는 화물선과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한 발열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다른 시·도로부터 화물이 들어오는 도내 주요 항만(제주항·서귀포항·애월항)에서는 화물선의 부두접안 시 공무원이 승선해 승무원 및 화물차량 운전사를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판장에 대한 발열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상악화 시 도내 주요 항포구로 피항하는 타시·도 어선원의 발열검사를 위해 수산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검사반(5개조·22명)을 편성했으며, 해경과 어업정보통신국 등 유관 기관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타·시도 어선이 제주 입항시 발열검사를 받기 전에는 하선하지 못하도록 대어업인 홍보(무선 방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9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제주시 제주보건소와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한 후 “의료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제주도에서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7~29일 전화상담조사에서 무증상을 보인 도내 신천지 교인중 1명이 유증상을 보이는 등 검체를 채취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고대호·오은지기자



장사진 이론 마스크 구매 행렬 서귀포시 성산 고성우체국에서 28일 오후 5시부터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자 구매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장사진을 이뤘다.

“도심 노는 땅에 나무 심어드립니다”

제주도 '식목 자투리 땅' 공모

제주자치도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심 내 나무 심을 자투리 땅 찾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추진은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진행되는 것으로, 주택 인접 자투리 땅(공한지·사유지)에 제주도가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 토지는 주변 도로나 주차장, 마을어귀 골목, 개인 소유 집 주변 공터 등 노는 땅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여기에 원하는 수종이나 신청이유, 사연 등을 함께 제출하면 최

대한 반응이 이뤄진다.

응모신청서에 나무 심을 장소와 신청사유 등을 기재해 관할 행정시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방식은 전화나 팩스, 우편, 이메일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7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760-3035)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코로나19 극복에 힘 모아달라”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

“정부도 위기 극복 전력”



3·1절 기념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제101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맞이할 때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려냈다”며 코로나19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코로나19로 맞은 위기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목표로 소재·부품 장비의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 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민극복의 저력의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온 국민이 함께 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으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례없는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국제전기차엑스포 4연속 국제전시 인증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회 연속 국내 13% 수준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는 지난 2016년 제3회부터 지난해 제6회까지 4년 연속 국제전시 인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제전시 인증은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2회 이상 개최한 전시회 중에서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의해 국내외 전시참여 기업 및 바이어, 국내외 참관객 등의 관련자료에 대해 6개월여 걸쳐 현장 검증, 관련자료 요청 및 검증(참가기업·진흥회, 참관객·회계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4회 연속 국제인증 전시회는 국내 620여개 전시회의 12.9%인 80여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국제 전시로 인증 받은 주요 요인으로는 참가국이 지난 2013년 제1회 당시 8개국 대비 5.9배인 51개국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인증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수출바우처사업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으로 참가업체 참가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주관 '주한외국공관초청설명회(AEi Business Day)' 참가자격 부여 ▷전시회 전문 해외홍보미디어(10회) 이용 비용 20% 할인 ▷국내외 유관기관 및 해외바이어 인증전시회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대호기자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공무원 및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등 의료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응원, 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주신용협동조합 임직원·조합원일동

본점(동문로터리) 752-5101 | 일도지점(인화동사거리) 752-5102 | 노형지점(노형초 서쪽100m) 745-5103